우리나라에 적합한 무용예술 교육

전 주 현 ·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 서울 기독대학교 강사

유니버설발레단 2003 지젤공연

현대가 원하는 인간상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심미적인 정서의 바람직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예술교육은 이러한 인간 형성을 위한 분야로서 그 시대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분야이다.

특히 무용은 예술과 과학의 복합체로서 어느 한 가지 목표달성이 아닌 전인적 교육을 다루는데, 이는 단순히 신체의 발달뿐 아니라 창의적 능력, 리듬 감각, 성취감, 표현력, 수리적 사고에 관한 개념, 개인 및 가정생활 나아가서 집단적, 국가 생활까지 영향을 주며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무용예술 교육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무용 예술인 양성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아울러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무용예술 교육을 제시하려 한다.

단계별 무용교육의 목적과 현황

유아기의 무용교육의 목적은 올바른 움직임의 학습을 통해 무용을 개인의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지하게 해 주고, 신체적 발달은 물론 보다 풍부한 감성의 문화인이 될 수 있도록 정서적 순화와 창의적 능력 그리고 지적 발달을 키워주는데 있다. 이것은 풍부한 표현력과 높은 정서활동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간과 심미적인 인간형성에 밑받침이 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우리나라 유아 무용교육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확대되면서 전인적 발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나 율동이나 유희, 무용 등의 활동을 통해서 피상적인 신체표현기술의 증진을 강조하는 기능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유치원 무용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달리 즐겁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또한 아동들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의 무용교육은 리듬교육, 음률활동, 동작활동 등 뚜렷한 교과명을 지니지 못한 채 시간도 주 1·2회에 불과하

다. 이는 무용교육이 주입식이 아닌 창의적 교육이라는 면을 중시할 때,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시 비중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퍼셀(Theresa M. Purcell, 2001)은 아동기의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무용은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으로 각 활동들을 통합하고 있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낀다. 다른 교과 영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표현의 수단인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무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역사, 음악, 미술, 국어, 과학, 사회와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초등 무용교육이 단순히 움직임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예술교육, 감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 무용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무용가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걸 배우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 무용교육을 살펴보면 '유희'가 필수교재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어 제 1차 교육과정에서 현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체육과목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무용은 체육교과 내에 속해 있으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래 무용을 포함한 예체능교육이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다. 무용 및 체육수업의 시수가 줄어들었으며 교육 예산의 삭감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오게 되었다.(김창현, 2003) 현행 정규 교육과정 속의 제한된 특별활동 시간은 아동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특기교육의 실시와 고등정신 기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특기 · 적성 교육활동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중에서 무용 특기 · 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초등학교는 28.54%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교육의 무용교육은 몇몇 사설 기관에서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업의 형태인 무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1988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센터가 하나, 둘씩 신설되면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좋은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유아의 조기 발레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조기 발레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기에 올바른 자세와 균형있는 신체를 만들게 하고 발레에 자질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훌륭한 무용수로 기르는 것과 적절한 비용으로 훌륭한 시설과 지도자를 제공하여 발레를 배우려고 하는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수업 단계로는 주 1 · 2회, 매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에는 발레의 조기교육과 발레 인구의 저변확대,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한국발레하우스(Korea Ballet House)가 설립되어 조기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운영난으로 현재는 소멸된 상태이다. 1992년 3월에는 한국 발레교육의 체계화와 단계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영국의 R.A.D(Royal Ballet Academy)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시하는 서울 발레 아카데미(Seoul Ballet Academy)가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리포트나 자격증을 영국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1993년, 국립발레단 부설 교육기관으로 국립발레 아카데미(Korea Ballet Academy)가 국립극장 문화학교 발레반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 2000년 2월에 국립극장에서 독립하여 국립발레단 발레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기의 취지는 미래의 무용수들을 어릴 때부터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이었으나 현재는 '발레 영재 발굴'과 '발레 관객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프로무용수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기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왔고, 어린이용 실기프로그램 개발, 음악성 개발 프로그램, 공연 레파토리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매년

2학기제로 운영되고 반드시 오디션을 거쳐야만 입학할 수 있다. 또한 학기마다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방학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해외 발레학교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또한 1993년 3월에는 무용과 공연예술의 교육의 장으로 창무예술원 산하인 창무 인스티튜트(Changmu Institute)가 개관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기초교육에서부터 전공인을 위한 마스터 과정까지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러시아 발레과정을 개설하여 발레 전공인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초청 공연장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니버설 발레단 산하 유니버설 아카데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와 건강한 신체 발육을 통하여 장차 훌륭한 발레 예술인으로서 성장시킬 목적으로 1994년 서울, 1996년 분당에 발레 교실을 설립하였다. 여기에서는 발레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맞추어 어린이를 위한 실기 커리큘럼과 공연 레파토리를 연구 개발하며 기본 실기 중심의 예술성과 음악성 개발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96년 9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실기 연수과정(예비학교)에서 예술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년 2학기(44주) 수업으로 주 3회(2시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바가노바 메소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전공 실기수업과 정기공연으로 편성 · 운영하고 있다. 2002년 3월에는 러시아의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Vaganova Ballet Academy)에서 한국분원을 개원하여 러시아 발레학교의 교육 메소드를 단계별로 지도하고 있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레 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학생, 성인반 및 지도반을 운영하여 발레 수준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중학교부터 시작되어 예술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의 교육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예술중 ·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참다운 예술교육을 통해 조화로운 신체발달, 창작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개인적 재능개발, 무용인재 육성으로 참다운 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2003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무용전문교육기관으로는 예술중 · 고등학교가 23개교(예술중학교는 서울이 2개교, 부산과 전북이 각 1개교이며 예술고등학교는 서울 4개교, 부산 2개교, 전남 2개교 그 외 각 도별로 1개교가 있는 반면 강원, 제주지역에는 예술중 · 고등학교가 전무한 상태), 2년제 무용관련학과 7개교, 4년제 대학 무용(학)과는 45개교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학 무용(학)과의 교육 목표는 창조적 미의 추구, 인격함양을 위한 창의성 개발, 학문연구 등을 통하여 지도자 양성과 전문무용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무용지도자, 무용예술가, 무용학자, 직업무용수, 안무가, 무용 관련 분야 직업인 등 그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대학 무용(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용가 겸 교육자, 무용가 겸 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공 즉 무용심리, 무용과학, 무용치료, 무용조명, 무용의상, 사회무용, 분장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오늘날의 대학무용 교육과정이 전문적인 무용수를 길러낼 수 있는지, 무용교육자, 무용학자, 무용행정가 등의 무용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한 교육과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교수 또한 일률적으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담당교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화숙, 1992)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획일적인 예술교육으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 직업적 예술가 양성의 부족현상으로 전문예술인이 되기를 원하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찾아 해외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종합적인 전업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한 실기와 프로덕션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교육을 해야 한

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방법, 세계정상급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춘 실기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1992년 설립되면서 1993년 음악원이, 1994년 연극원이, 1995년 영상원이, 1996년 무용원이 개설되었다. 교육과정은 실기, 창작, 이론(무용, 공연, 공연예술경영)으로 전공이 학과별로 세분화됨으로써 학생의 적성에 맞춘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춤 테크닉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실기교육, 영재실기교육, 인턴십과 같은 현장교육, 논리력과 외국어 해독력을 겸비하는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용원 자체의 대학원 과정과 해외의 고등 무용교육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용원은 한국 최초의 단일 고등무용 교육기관으로서 전문 무용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이 일반대학 내의 무용예술 전공분야의 교과과정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양성교육의 문제점과 그 제안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예능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무용교육은 학교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초등교육의 경우, 사설학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사설학원에서의 교육으로 인한 기능 위주의 진행으로 창작수업과 감상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성교육에 적합한 조화롭고 종합적인 교육내용이 학생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분화된 지도의 미흡으로 개별학습의 특성과 소질 향상에 부적절하고, 대다수의 학원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교육내용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내용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계별 체계적인 메소드가 많이 도입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 중심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정규 교육과정 속의 제한된 특별활동 시간은 아동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특기교육의 실시와 고등정신 기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중등교육에서는 발레의 전문교육 시기가 외국의 10세에 비해 우리는 14세에 시작되고 있어 발레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시작이 너무 늦을 뿐 아니라 단계별 교육 시스템의 미비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는 예술교육을 받기 위한 연계성이 소수의 예술학교에 의존하고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에 의지하는 실정이어서 연계성 교육이 열악한 실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의 졸업 후 진로는 대학원, 무용단 가입, 사설학원 운영, 교육계 진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개 한 사람이 두세 가지의 것을 겸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무용이 아직 전문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각 연령에 적합한 무용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앞서 입시제도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현 입시제도는 학업과 무용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실정으로 훌륭한 무용가의 가능성을 발휘도 하지 못한 채 입시제도에 급급해 쫓아가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외국 유학,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가노바 메소드나 R.A.D 메소드를 통한 기회도 있겠으나 이것은 앞서 논했듯이 국한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현직 교사, 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이루어진 무용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회가 조직되어 교육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무용전공자들의 참여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프로그램의 확립, 올바른 교사의 자질과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나라 무용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는 바이다.